

★ 발의안 제45호에 대한 찬성론 ★

발의안 제45호는 과도한 건강보험료 인상을 막아줄 것입니다. 건강보험료는 2002년 이후부터 물가상승률의 다섯 배인 185% 인상되었습니다.

보험료 상승이 부당한 것으로 확인되어도 California에서는 그 누구도 이를 막을 권한이 없습니다!

바로 이 때문에 최근에 California에서는 주 규제 기관이 "부당하다"고 판단했음에도 이를 제지하지 못해 보험료가 2억 5천만 달러나 올랐습니다.

발의안 제45호에 따라 건강보험회사는 580만 명의 개인 소비자와 소규모 사업체 운영자의 보험료를 인상하기 전에 회사 장부를 공개하고, 보험료 인상의 근거를 제시하며 이것이 거짓일 경우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발의안 제45호는

- 보험료 인상의 근거로 보험사가 제출하는 서류를 공개할 것을 요구합니다.
- 공청회를 허용하여 투명성을 높이고 근거 없는 보험료 인상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권리를 장려합니다.
- 보험국장에게 과도한 요금 인상을 거부하고 환급을 명령할 권한을 부여하여 보험국장의 책임을 만들어줍니다.

발의안 제45호는 건강보험회사의 부당이익 취득으로부터 환자를 보호합니다. 감당할 수 없는 보험료는 의료비 미불로 이어지며 이는 개인 파산의 주요 원인입니다. 미국인의 약 40%가 이 비용 때문에 진료나 필요한 치료를 받지 않습니다.

발의안 제45호는 건강보험회사의 가격 폭리를 막고 건강보험료를 내려줄 것입니다.

어떻게 알 수 있는가?

발의안 제45호는 소비자의 비용을 수십억 달러 절감시키고 유권자가 찬성한다 다른 발의안들의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California 자동차 및 주택 보험회사들은 1988년부터 보험료 인상 근거를 제시하고 인상 허가를 받아왔습니다.

유권자들에 의해 이러한 보험 보장 장치(발의안 제 103호)가 제정되면서 California는 20년 동안 자동차 보험료가 인화된 국내 유일의 주가 되었습니다! 미국 소비자 연맹은 2013년 11월에 California 자동차 보험료 규정이 과도한 요금 인상을 막아 California 소비자들이 1020억 달러를 아낄 수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발의안 제45호는 이러한 법령을 건강보험사에 적용합니다.

다른 여러 주에서 건강보험료를 심사한 적이 있는 국내에서 인정받는 보험 계리인과 컨슈머 워치독(Consumer Watchdog)은 발의안 제45호로 California 주민은 연간 2억 달러를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추산합니다.

발의안 제45호는 모두가 건강보험에 들어야 하는 현재에 더욱 필요합니다.

연방 의료보건법은 과도한 요금 인상을 막을 권한을 규제 기관에 주지 않습니다.

Los Angeles Times 편집 위원회에서 말했듯이 "2014년부터 건강보험 개혁법에 따라 미국의 모든 성인은 건강 보험 보장을 받아야 합니다. 규제 기관은 보험사가 내부 시장에서 폭리를 취하는 것을 막을 권한이 있어야 합니다."

San Jose Mercury News 사설에서는 "California는 전국 대다수 주(50개 중 36개)와 연합하여 건강보험료 인상을 통제할 권한을 확보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California에 있는 대형 건강보험회사들은 이미 발의안 제45호를 막기 위해 2540만 달러를 투입했습니다. 이들은 발의안 제45호 같은 투명성 및 책임을 강화하는 법률의 제정을 10년 동안 막았습니다. 이들은 자신이 원하는 만큼 계속 청구하길 원합니다. 속지 마십시오.

발의안 제45호는 건강보험회사가 보험료를 인상하고 소비자에게 부당한 비용을 전가하는 것을 막아 의료비를 내려줄 것입니다.

우리 함께 발의안 제45호에 찬성하여 건강보험에 드는 비용을 절감합시다. 자세한 사항은 www.yeson45.org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Deborah Burger, 대표
California주 간호사 협회

Jamie Court, 대표
컨슈머 워치독(Consumer Watchdog)

Dolores Huerta, 대표
시민 권리

★ 발의안 제45호의 찬성론에 대한 반박론 ★

발의안 제45호는 건강보험료 감독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California는 올해에 건강보험료를 감독하고 보장 범위를 확대하는 책임을 맡은 새로운 독립 위원회를 발족했기 때문입니다.

발의안 제45호는 보건의료에 대한 권한을 독립 위원회에 부여할지, 아니면 보험회사와 법정 변호사 같은 특별 이익 단체로부터 선거 후원금을 받을 수 있는 한 명의 행정관에게 부여할지에 관한 것입니다.

발의안 제45호—California의 새로운 독립 위원회 약화

Los Angeles Times에서 "의료비에 관한 회소식"으로 표현했듯이 독립 위원회는 비용을 잘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발의안 제45호를 지지하는 특수 이익 단체들은 다른 의제, 즉 건강보험 혜택과 요금에 대해 막대한 권한을 단 한 명의 Sacramento 행정관에게 부여한다는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이러한 권력 장악은 상이한 행정 절차, 장시간 지연, 높은 비용으로 독립 위원회를 방해하며 강력한 특별 이익 단체에 건강 보험에 대한 더 많은 영향력을 주게 될 것입니다.

발의안 제45호—결함이 있고 비용이 많이 들며 기만적인 또 다른 발의안

- 발의안 제45호에 따라 보험에서 보장하는 혜택과 치료 방법을 한 명의 행정관이 통제할 수 있게 됩니다. 일부

행정관의 정치적 의제에 치료 결정을 맡겨서는 안 됩니다.

- 지지자들이 2012년 발의안의 적격성을 평가하지 못해 야기된 중복되는 행정 절차에 비용이 지원되고 법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 행정 비용이 연간 수천만 달러 증가합니다.
- 숨겨진 의제—비용이 드는 새로운 소송. 지지자들은 지난 번에 지지한 발의안에 따라 1100만 달러의 변호사 비용을 벌어들였는데 이제 이들은 발의안 제45호에서 허용하는 새로운 의료 소송으로 수백만 달러를 더 벌기 위해 이 발의안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 대형 법인은 면제됩니다.

의사, 간호사, 환자, 진료소, 소규모 사업체들과 함께 발의안 제45호에 반대 투표를 해주십시오.

Gail Nickerson, 회장
California 취약지 보건소 협회

Robert A. Moss, MD, 회장
남 California 의학 중앙 협회

Kim Stone, 회장
California 주 민사 판사 협회

★ 발의안 제45호에 대한 반대론 ★

우리 모두 의료 체계 개선을 원하지만 발의안 제45호는 우리가 원하는 개혁이 아닙니다.

그보다는 발의안 제45호는 그 지지자와 특별 이익 단체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발의된 결함이 있고 비용이 많이 들고 기만적인 법안입니다. 환자, 소비자, 납세자는 보험료 인상, 행정 비용 증가, 새로운 의료 장벽이라는 난관에 봉착할 것입니다.

발의안 제45호는 상황을 개선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악화시킵니다. 바로 이때문에 California 의사, 간호사, 환자, 진료소, 병원, 납세자, 소규모 사업체 모두 발의안 제45호에 반대하는 것입니다.

행정관 한 명에게 너무 많은 권한 부여—법안 1861.17(g)(2) 항 발의안 제45호는 법정 변호사, 보험회사 및 기타 강력한 특별 이익 단체로부터 선거 후원금을 받을 수 있는 한 명의 선출직 행정관(보험국장)에게 건강보험 보장에 대한 광범위한 통제권을 부여합니다.

발의안 제45호에 따라 Sacramento의 특별 이익 단체가 아니라 환자와 소비자에게 혜택을 주는 결정이 내려지도록 보장하기 위해 아무런 견제와 균형도 없이 이 한 명의 행정관이 보험에서 보장하는 혜택 및 치료 방법을 통제할 수 있습니다.

"발의안 제45호는 한 명의 행정관에게 건강보험에 대한 권한을 너무 많이 부여합니다. 치료는 정치적 목적을 지닌 사람이 아니라 의사와 환자가 결정해야 합니다."—Jeanne Conry 박사, MD, OB/GYN—미국 산부인과 대학 협회 직전 회장, IX 지구

중복되는 행정 비용 증가—법안 1861.17(e) 항 발의안 제45호는 건강보험료를 감독하는 다른 두 기관의 업무가 중복되어 주 행정비가 훨씬 더 증가하여 다른 규제와 혼동되며, 의료 체계의 행정 절차를 가중시킵니다.

초당파적인 입법분석관실은 이 발의안으로 주 행정 비용이 연간 수천만 달러가 증가할 수 있다고 전망했으며, 이 비용은 결국 소비자가 부담하게 됩니다.

학교, 어린이 보건의료 사업 또는 기타 중요한 사업에 자금을 충분히 지원할 수 없는 상황에서 비용이 많이 들고 중복되는 주 행정 절차를 새롭게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CALIFORNIA에는 이미 독립적인 새 보건의료 위원회가 있습니다.

California는 소비자를 대신하여 건강 보험료를 협상하고 너무 과도할 경우 이를 거부할 책임이 있는 독립적인 새 위원회를 만들었습니다.

이 독립 위원회는 비용을 통제하고 보장 범위를 확대하는 일을 잘 해내고 있습니다. 특별 이익 단체로부터 선거 후원금을 받을 수 있는 행정관이 이 위원회의 일을 간섭하도록 두어서는 안 됩니다.

대형 법인 면제—법안 1861.17(g)(3) 항 발의안 제45호는 새로운 규제와 행정 절차로 소규모 사업체에 부담을 주면서 대형 법인의 의무는 면제시킵니다. 의료 체계를 개혁하고자 한다면 소규모 사업체와 개인뿐만 아니라 모두에게 적용해야 합니다.

작은 글씨에 숨겨진 사소한 소송—법안 1861.17(a) 항 발의안 San Diego Union-Tribune에 따르면, 제45호 지지자들은 지난 번에 지지했던 발의안으로 허용된 법적 이익의 제기로 수백만 달러의 부당 이익을 거둬들인 변호사들입니다. 이들은 발의안 제45호 안에 동일한 조항을 숨겨 넣어 시간당 675달러까지 청구하여 값비싼 의료 소송으로 수백만 달러를 벌 수 있도록 했습니다.

소비자들이 내는 돈으로 지지자들이 부자가 될 것입니다. 미국의 의료 체계는 너무 복잡해 하나의 특별 이익 단체가 추진하는 발의안을 통해 크게 바꾸기가 어렵습니다. 바꾸기를 원한다면 환자, 의사, 병원이 함께 해결에 동참해야 합니다.

발의안 제45호에 반대 투표를 해주십시오.

www.StopHigherCosts.org

Monica Weisbrich, R.N., 회장
California 간호사 협회
José Arévalo 박사, M.D., 회장
California 라틴계 의사 협회
Allan Zarembeg, 소장
California 주 상공회의소

★ 발의안 제45호의 반대론에 대한 반박론 ★

California 주민들은 건강보험산업으로부터 과다 청구를 받고 있습니다. 발의안 제45호는 보험업계의 가격 폭리를 막아 소비자를 보호합니다. 이 발의안은 소비자들의 비용을 수십억 달러 덜어준 California의 기존 자동차 보험 보장을 건강보험에 적용합니다.

California 보험 시장의 88%를 장악하고 있는 다섯 개 건강보험회사들이 발의안 제45호에 반대하는 25,300,000달러의 기금을 모금했습니다. Blue Cross와 모회사 Wellpoint, Kaiser, Blue Shield, Health Net 및 United Healthcare가 그들입니다. 이들 기업은 책임, 투명성 또는 공개 없이 계속해서 최대한 많은 요금을 청구하기를 원합니다.

건강보험회사들이 여러분의 건강보험 비용을 덜어주거나 여러분의 의료를 개선하기 위해 2500만 달러를 사용했던 적이 있습니까?

사실은 다음과 같습니다.

- 발의안 제45호는 여러분의 혜택이나 치료 방법이 아니라 건강보험료만 제한할 것입니다. 바로 이 때문에 85,000명의 등록 간호사를 대표하는 California주 간호사 협회가 발의안 제45호를 지지하는 것입니다.

- California나 연방 차원에서 부당한 건강보험료를 막을 권한이 있는 "위원회"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발의안 제45호에서 우리가 선출하는 보험국장에게 과도한 요금 인상을 거부할 권한을 주는 것입니다. 2000년 이후부터는 보험회사들로부터 선거 후원금을 받은 보험국장이 한 명도 없습니다. 건강보험사들이 걱정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 발의안 제45호로 인해 새로운 행정 절차가 생기지 않을 것입니다. 이 발의안에 따라 건강보험사들은 유권자가 찬성했던 발의안 제103호에 따라 다른 보험사에 적용되는 것과 동일한 법령을 준수하고 그 시행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보험회사들은 자동차, 주택 및 사업 보험사들의 과다 청구된 수십억 달러를 무효화시킨 과도한 요금에 대한 소비자 이익의 제기와 이러한 법령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www.yeson45.org

Paul Song 박사, 공동 의장
건강한 California를 위한 운동 본부
Henry L. "Hank" Lacayo, 회장
California 노인 의회
Harvey Rosenfield, 1988년 보험 개혁 발의안 제103호 작성자